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쪽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회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합복사소, 휴양각, 휴식터, 산보길, 다용도야외운동장 등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된 휴양소,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휴양소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양소의 중심 건물인 종합복사소를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식사실과 연회장은 물론 리발실, 미용실, 목욕실도 흠잡을데가 없으며 전자도서실, 협의실, 록화물방영실,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대상들을 비판부적으로 멋지게 일떠세웠으며 건물의 외벽타일과 지붕재색갈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휴양각내부도 고급호텔수준이라고, 다용도야외운동장도 꾸러놓으니 휴양생들이 마음껏 운동



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서로 떨어져있는 건축물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외관이 볼수록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휴양소의 모든 요소요소를 당에서 비

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받아들인것이 좋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령에너지를, 령탄소, 록색건축방향으

로 나가는것만큼 과학연구부문과 설계부문에서 새 세기 건축개념을 알고 재생에너지를,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호의 자연

풍치를 더욱 돋굴수 있게 휴양소주변에 지피식물과 나무를 심고 포도덩굴을 정성껏 조성했으며 구내길에 청석을 깔아놓으니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고, 호안정리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양소종업원살림집과 탁아소와 유치원도 만족하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우리 조국의 모습,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용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후세에 길이 전할 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또다시 창조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또한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주변정리에서 인민군대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한 군부대들에게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 사단장, 려단장, 각급 군사학교의 교원들이 훈련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의 공병부대들이 설비한 각종 차단물들을 극복하고 기계화구분대들이 진출할 통로를 개방

하기 위해 먼저 조선인민군 제478련합부대의 경보병부대 전투원들이 과감한 습격으로 방어계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하였으며 이어 전진보장부대들이 각종 차단물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었다.

기계화구분대들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해 날아들던 《직승기》들이 휴대용고사로켓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졌으며 조선인민군 제478련합부대의 각종 자행포들이 일제사격으로 대상물들을 타격하였다.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통쾌하게 명중시키는것을 보시고 포를 정말 잘 쏘오, 정확히 들어맞소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오늘 훈련의 우열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훈련이 당

의 군사전략방침관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쌍방실동훈련을 진행하면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것만큼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싸움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멧따기를 철저히 없애고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 지휘관들, 특히 훈련일군들이 훈련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실무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문제,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훈련을 실천만이 나게 하는 문제, 군중, 병종, 전문병들사이의 협동동작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본사기자

# 그 리 움 에 사 는 인 민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고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신 김정은원수님을 뵈오며 온 나라 인민들속에서 우리나라의 심정을 그대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 끝없는 사랑과 정이 되어 흘러들었고 환한 미소가 그대로 찬란한 햇빛이 되어 이 땅에 약동하는 활력을 부여주고있다.

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언저왔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늘까지 경기마다에서 련전승할수 있었다.》

그리움은 사랑과 정이 발현이다. 사랑과 정은 사람들사이의 뉴대를 두루이 하는것과 함께 사회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워하는 진한 그리움의 세계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날게 하는 정신적합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과 인민들사이에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랑과 정이 세계, 그리움의 세계가 맺어졌다. 그들속에는 종파논들이 아무리 쓸라타가려도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라며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담아 말씀올렸던 래성할머니도 있었고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귀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아이여 수령님께 크나큰 힘을 드린 락윈의 녀성동지들도 있었으며 6만6천의 분과업원중에서 12만의 강제를 생산한 강건제강소(지금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철생산자들도 있었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변명을 위한 길에서 한복속 서슴없이 바친 유망청년들의 애국자들도 모두가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오늘도 조국이 기어올라가는 빛나는 삶을 지니게 되었다.

집집마다에서, 일터마다에서 그의 현지지도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에 첫어있는것이다.

오늘은 또 연평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신 그의 영상을 뵈오면서 인민의 마음은 령도자에게로 달려가고있다.

그리움은 범상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갈란사나 느낌표로 통하는 《1》가 새겨질 정도의 심중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수천킬 지하막장에서 탄을 캐는 란부도, 멀리 대양을 항행하는 선원들도, 외진 등대섬의 등대원들이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한 감춰진 것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순결한 그리움의 세계이며 그 힘으로 모진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며 강성부흥의 패일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파력이 56kg급경기에서 세계기록을 세운 엄운현선수수는 우승의 소감과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

난시련을 헤쳐오면서 더욱 굳게 맺어졌다.

은 한해동안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모두가 도로관리원이 된 자강도 구룡령할머니의 가족, 위대한 장군님께 새로 태어날 아기를 좀 줄어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린 량강도 대흥단의 신촌부부, 에스빠나의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 경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달려 우승한 정성욱선수...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밤길을 달릴 때면 이른 새벽 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쓸던 래성할머니생각이 나온 한다고, 지금은 온 나라 인민이 래성할머니처럼 되었다고 하시었던것이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늘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 인민의 수령,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는 없었다.

조선의 혼연일체의 전통은 오늘을 우리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애국헌신의 령도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으로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이시다.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

를 맡을것을 소개선전하자면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인민이 나무그늘밑에 앉아 휴식하기를 바라시며 이 체로운 나무의자도 그려주시고 혁명학원 원아들의 눈물로 닦아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세 병원을 힘으로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면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인민이 나무그늘밑에 앉아 휴식하기를 바라시며 이 체로운 나무의자도 그려주시고 혁명학원 원아들의 눈물로 닦아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본사기자 리경철

위대한 령도자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가 깃들어있다.

사랑과 정이 뿜어지고 매혹과 흠모, 믿음과 그리움이 넘쳐나는 이 성스러운 단결에서 그 한계를 알수 없는 공화국의 무한대한 힘이 분출되고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미래를 확신하는 필승의 신심과 락윈이 빛날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혼연일체이며 그 힘으로 강성국가도 건설하고 부강변명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워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사람들의 생활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다. 사랑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부모자녀간의 약속, 사회적 약속... 여기에 적어놓는것은 령도자가 인민들과 한 사랑의 약속에 대한것이다.

지난해 8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어 후대 교육사업에 헌성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칭찬해 주시며,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에게도 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었다.

들어다보면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펴시고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자들에게 두터운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

를 드러내놓았다.

사랑의 약속속에 또 사랑의 약속이 있다. 사랑의 약속을 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끝이 없는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약속은 이 땅속에 받드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세워 공화국을 강위력한 나라로 빛내이시려는 원대한 구상과 결심의 발현이며 인민들의 리상과 넘칠

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인민이 나무그늘밑에 앉아 휴식하기를 바라시며 이 체로운 나무의자도 그려주시고 혁명학원 원아들의 눈물로 닦아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세 병원을 힘으로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면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인민이 나무그늘밑에 앉아 휴식하기를 바라시며 이 체로운 나무의자도 그려주시고 혁명학원 원아들의 눈물로 닦아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과 약속을 하나 하여도 조상전래의 꿈과 리상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피약별 내리쬐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나 쉬임없이 인민행렬속에 오르고 그리고 로고의 땀방울을 바쳐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그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바로 두해전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담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크나큰 약속은 그이의 헌신의 로고속에 하나, 둘 빛나는 현실로 펼쳐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밝은 태양이 세월을 앞당겨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리경철

대동강에 떠있는 듯베, 정말 그렇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과 더불어 초고층아파트들이 순풍에 돛단 배마냥 멋지게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5 000년전에 인류사회에 출현하였다는 듯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기선에 이어 원자력선, 유조선, 잠수함, 항공모함이 나온 오늘에 와서도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바람이 불면 풍만한 곡식미를 그리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베, 완만함과 평온함, 아름다움으로 하여 듯베는 언제부터인가는 인간생활에 평온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듯베를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조각품들은 세

를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 주시려는 뜨거우 약속이다.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주고 싶어서 하고 열백을 주시면 천만을 주고 싶어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고한 사랑의 세계가 깃들어있는 약속.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부흥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중시, 인재중시가 지름길이라는것을 환히 꿰뚫어 보셨기에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게

정치가인 과편 몇이나 되느냐. 일단 당신이 되면 약속은 헌신처럼 차버리고 제 리속 책기에만 굽금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치가 부자들을 위한 정치이고 자기자신을 위한 정치라는데서 오는 필연적결론이다.

이와는 달리 공화국에서는 말그대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있으며 따라서 약속도 인민을 위한 약속, 인민과 하는 소중한 약속으로 되고있다.

문력강화로 인민의 안성을 지켜주시여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상을 도모하는 생산적양양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조국방위의 하늘, 땅, 바다에서는 자위의 총성이 서늘푸른 계절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난다. 싸움에서 패일이면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가 인민군장병들의 훈련장마다에서 그대로 서리받치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인민군대 항공 및 반항공군 군부대 비행사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었다.

인민들의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상을 위해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항공군의 비행장을 찾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4월에 있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 참가한 비행사들의 토론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그때 그들은 임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에 출격해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필적의 폭음으로 상대를 전멸시킬수 있게 싸움준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화성성세하는 적들을 우리 식의 비행전법으로 타도할 결심을 피력했었다.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게 준비하기 위하여 비행훈련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비행사들, 그날 현지를 찾으시며 기조조건과 도로비행장상대에 맞게 비행임무를 수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작전비행장에서 불의에 추격

가 될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고 분과 초를 아껴 최대의 마력을 내어 전투력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때문에 그이께서는 군부대들을 시찰할 때면 오늘도 비행사들의 비행기술을 보신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잘 다루고 높이 평가하고 언제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든 마저전 공중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훈련을 실천과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많이 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싸움준비완성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고 분과 초를 아껴 최대의 마력을 내어 전투력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때문에 그이께서는 군부대들을 시찰할 때면 오늘도 비행사들의 비행기술을 보신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잘 다루고 높이 평가하고 언제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든 마저전 공중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훈련을 실천과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많이 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말려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자기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하신 우리 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내세우고 나라의 운명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며 국가건설전반을 밀고나가자는것이 그의 일관한 령도원칙, 정치방식이며 실천이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조국방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비행훈련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비행사들, 그날 현지를 찾으시며 기조조건과 도로비행장상대에 맞게 비행임무를 수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작전비행장에서 불의에 추격

## 또 다시 약속을 남기시며

계 어디를 가나 볼수 있고 사람들사이에 오가는 선물들 가운데도 듯베를 형상한 기호품들이 많은것이다.

이번에 대동강가에 솟아 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듯베형식의 모습으로 자기의 독특한 건축미를 뽐내고있다.

교육자들을 내세우고 인재 키우기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떠나 이렇듯 독특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생각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평양의 첫줄기인 대동강을 긴 명당자리에 교육자들을 위한 최첨단 초고층살림집을 지어주도록 하시고 건축형식을 특색있게 하는데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이시다. 이 세상 가장 크고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떠받들려 행복의 대동강반에 등실 솟아난 커다란 《듯베》.

이 사랑의 《듯베》에 실려 교육자들은 이제 대동강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교육사업과 과학연구를 위한 환상의 나라를 더 활짝 펴게 될것 이리라.

사랑의 《듯베》, 행복의 《듯베》를 등실 띄우고 대동강물도 감격에 겨워 햇빛을 반짝이며 끝없이 출렁이 고있다.

김준경

대동강에 떠있는 듯베, 정말 그렇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과 더불어 초고층아파트들이 순풍에 돛단 배마냥 멋지게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5 000년전에 인류사회에 출현하였다는 듯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기선에 이어 원자력선, 유조선, 잠수함, 항공모함이 나온 오늘에 와서도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바람이 불면 풍만한 곡식미를 그리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베, 완만함과 평온함, 아름다움으로 하여 듯베는 언제부터인가는 인간생활에 평온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듯베를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조각품들은 세



###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며

####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주제87(1998)년 삼복철이 었다.

기온이 33°C에 이르러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웠다. 그런 계절이면 국가수반들은 피서지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단원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고... 호르는 땀을 연방 닦으시

### 군력강화로

### 인민의 안성을

### 지켜주시여

대동강에 떠있는 듯베, 정말 그렇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과 더불어 초고층아파트들이 순풍에 돛단 배마냥 멋지게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5 000년전에 인류사회에 출현하였다는 듯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기선에 이어 원자력선, 유조선, 잠수함, 항공모함이 나온 오늘에 와서도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바람이 불면 풍만한 곡식미를 그리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베, 완만함과 평온함, 아름다움으로 하여 듯베는 언제부터인가는 인간생활에 평온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듯베를 형상한 미술작품들과 조각품들은 세

# 천지개벽된 위성과 학자주택지구 의 희한한 풍경

## 국가 과학원 과학자들 새 집들이 시작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위성과 학자주택지구 에 새 집들이 경사가 났다.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

다 돌려주는 이 희한한 풍경은 별친 현대적인 주택지구로 이사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조금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며 과학자들과 가족들은 끝없는 애민헌신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다.

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을 이룬 새 주택지구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부부장들을 비롯한 책임인물들이 찾아가 행복의 보급자리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집주인들을 축하해주었다.

들이 훌륭히 꾸러지고 침대를 비롯한 고급가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면서 방마다에 감격을 금치 못했다.

찬장도 열어보고 수도꼭지도 틀어보며 어머니당의 세심한 손길아래 생활상편리가 최대로 보강된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과학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마린해가지고 간 기념품들을 넘겨주었다.

새 집들이를 한 집주인들과 한자리에 앉은 일꾼들은 온늘의 이 경사를 안아오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정책

에 의하여 부강조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최상의 수준으로 꾸러진 새 집을 받아안은 것이 너무도 꿈만같아 과학자들과 가족들은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온 주택지구가 들썩하게 출판을 벌려놓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랑의 금방석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추모의 정이 어려웠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품소 돌아보신 5호동 1현관

1층 1호에서 살게 된 영광을 지닌 연구사 김승철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새 집들이를 할 자식의 집에 찾아온 친부모의 심정으로 매 살림방들을 돌아보시며 생활상편리를 속속들이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자기 집의 방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고 하면서 그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쳐었다.

당의 품속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아안으며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 과학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은덕에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할 마음뿐이다.

11호동에 입사한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연구사 송창호의 집에서도 격정에 넘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통락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온 가족이 모여앉아 어머니당을 우러러 감사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고 있었다.

진정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영원히 안겨갈 사회주의 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모르

는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새 집에 들어선 실장 김국철의 안해 리정옥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방이 아담하고 부엌도 가정주부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얼마나 잘 꾸러졌는지 보면 볼수록 놀람기만 하다.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이 행복, 이 경사를 천만마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남편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과학자의 안해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현대적인 살림집에 입사한 과학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드세게 벌려 과학기술발전의 앞산 열매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 북 남 고 위 급 접 촉 북 측 대표 단 성 명

최근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괴뢰보수패당의 도발적망동으로 다시 급격히 일어블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4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을 고무해주고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일행은 남측 《국무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통일부 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기회에 북과 남이 인천에 모여 하나가 된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끈결음을 내디디자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를 풀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의 성과가 크지만 그것은 아직 오솔길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자주 오가면서 오솔길을 대를로 만들어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에서 우리 합정에 총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충돌사태가 빚어지게 하였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배라살포를 강행하여 우리를 참을 수없이 자극하였다.

15일부터 서유럽을 행각한 남조선 집권자는 국제회의에서와 여러 《정상》들을 만나 우리에게 대해 《핵》이요, 《인권》이요, 《주민생활》이요 뭐요 하며 시비하는 극악한 망발을 웨쳐 우리 인민들의 분격을 더욱 불리일었다.

18일과 19일에는 괴뢰군부장제들이 련이어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군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여 쌍방사이 에 위험천만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하였다.

괴뢰패당은 사태수습을 위해 우리가 긴급접촉을 제의한데 대해서도 이 괴랄 저 괴랄 시간을 끌다가 마치못해 끌러나와서는 심히 오만무례하게 높아대던 끝에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접촉을 결렬시켰었다.

인천에서의 만남이후 불과 보름사이 에 벌어진 이 정악스러운 사태는 지금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으며 는 거제를 크게 실망시키고있다.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들은 우리의 정의있는 노력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으로서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와 한 약속이 과연 진실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급 일행을 인천에 전격적으로 파견하시고 그 기회에 남측의 당국관계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을 전하도록 하심었다.

남측당국자들은 그에 대해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자기들도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우리는 인천방문후 즉시 비방증상도 일체 중지하였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적극 강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상반되게 남측의 태도에서는 달라진것이 전혀 없었으며 대결적인동태와 행태는 더욱 우심해졌다.

오늘의 현실은 그대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가식이고 민말이라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3일도 못되어 불질을 하고 배라를 뿌리며 망발을 웨치는것과 같은 행위를 그처럼 거리낌없이 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발은 저들이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대해 《도발》이니, 《량면전술》이니, 《이중성》이니 뭐니 하면서 악행을 돈구고있는것이다.

아오는 위험천만한 도발놈음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발광하는 괴뢰패당에게는 예상사로 될지 모르지만 민족을 최우선, 최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박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괴뢰패당의 망발은 불을 지른 놈이 불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추태로서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가리우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비렬한 꾀변이다.

날로 험악하게 번져가는 현 사태의 배후에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국유보수패력들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금 미국과 국유보수쟁패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화를 파탄시키며 정세를 극단적파국으로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이 배라살포에 그처럼 파손이 되어 날뛴것도, 괴뢰군부호전망발을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도발사건을 련이어 일으키는것도 미국과 국유보수세력의 부추김에 의한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한층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과 괴뢰군사관제들의 란동에 의해 깨지고 있는것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반동성력에 의해 통락되는 사태를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배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것이고 고도로 예민한 룻지와 해상 림접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겁잡을수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져지마련이다.

이런 사태는 그 위험성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전쟁은 반드시 예고하고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모략배라 한장, 총탄 한발에 의해서도 터질수 있다는것을 인류력사는 기록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가장 첨예한 군사적열점지역에서 거듭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과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수 없다.

현실은 일방이 아무리 노력하여 좋은 합의를 이룩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화답이 없으면 모든것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이 사태만이 아니라 북남관계의 령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그렇게 되어 서명인크도 마르기 전에 백지화되었고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정권》교체가 되기 바쁘게 빈종이장기로 되고말았다.

이번 인천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당국자들사이의 약속도 역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인천방문에서 보인 우리의 통큰 결단과 아량, 성의있는 노력을 함부로 우롱하고 모독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안적이고 편협한 대결관점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잘못 써온 북남관계력사를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써나가는데서 당국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자들의 의지가 확고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다.

남측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풀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위기를 해치고 대세에 역행하는 도발적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압박》의 《두걸전략》이니 하지 않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것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자멸뿐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 아니면 대결이 최후단으로 치달아올라 전쟁의 불씨로 번지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이야말로 말보다 실천적행동으로 시대와 민족, 력사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대결하려고 하면서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에 도전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도발도 무자비한 정벌로 단호히 짓고넘어라 한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대결적인 관점으로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자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평양



# 다양한 《철쭉》 상표 양말들이 생산된다

지금 평양의 백화점들과 상점들에서는 평양양말공장서 생산한 《철쭉》상표 양말들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탄력하고 문양고운 양말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 평양양말공장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연회색 외벽타일을 산뜻하게 불린 공장구내에 갖가지 나무들로 꽉 차있어 마치 공원속에 들어선듯싶었다. 현대적미감이면서도 정갈하게 꾸러진 공장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와 만난 한철초기사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인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장이 몇해사이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었다고, 공장에서 인민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갖가지 질좋은 양말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고 하면서 생산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에 의하여 질좋은 양말들이 출

아지고있었다. 현대적인 제작기구에 양말의 형태와 색깔, 무늬 등에 따라 해당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그에 맞는 양말들이 생산되어어나온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쭉》상표 양말의 품종수는 800여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양말발전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힘차게 벌려 두해전에 비해 제품의 가지수수를 500여가지나 더 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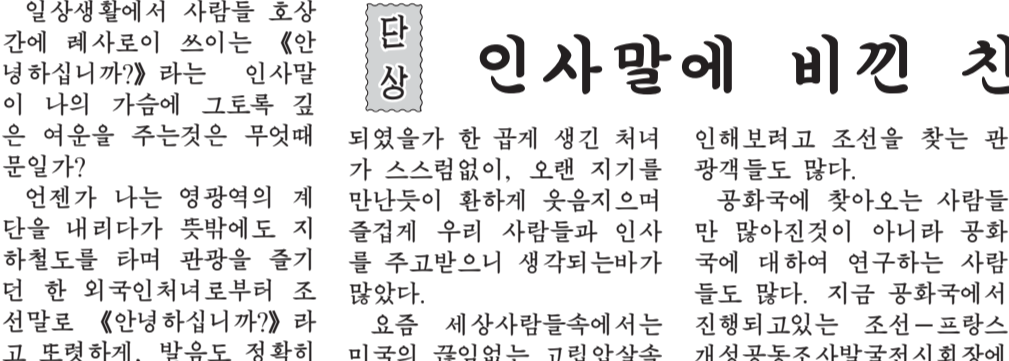
공장의 제품본질에는 남녀별, 나이별, 계절별 그리고 짧은양말, 무릎양말, 양말바지를 비롯한 각각각색의 여자양말들, 니꾸리, 곰, 곰뽕 등 형상을 아동양말과 체육운동용 긴양말 등 형태와 색깔이 다종다양한 양말로 딱 채워져있었다. 공장에 대하여 생산되는 《철쭉》상표들 단 양말들은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꼭 맞는 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고 한다.

《철쭉》상표 양말의 질을 개선하고 새 제품을 개발하



이들은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와 다양한 취미, 기호에 맞는 새로운 양말생산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있다. 이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나이별, 성별, 계절별에 따른 양말의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 무늬와 그림들이 결정된다. 결국 새 제품개발속도와 질체고는 기술자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속도와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양말포장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려나가는 과정에 얼마전에는 물가방형식의 여성양말류 음식포장방법을 창안하고 생산에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훨씬 높였다. 그들은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품들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호상간에 레사소이 쓰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나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여운을 주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언젠가 나는 영광의 계단을 내려다 뜻밖에도 저 하강도를 띠며 관광을 즐기고던 한 외국인친척으로부터 조선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또렷하게, 발음도 정확히 하는 인사말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이 우리말로 인사하는것이 반갑기도 하고 뜻밖이기도 하여 저도 모르게 웃으며 《반갑습니다.》라고 하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 외국인친척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련속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네는것이였다.

사실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가면서 그 나라의 말까지 배워가지고 가기는 흔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 나라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친근감이 없이는 평범한 인사말이나마 표현해보려는 의욕이 생길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지화철도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무살정도

되었을가 한 공생 생긴 처지가 스스럼없이, 오랜 지기를 만난듯이 환하게 웃음지으며 줄जू고 우리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니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요즘 세상사람들속에서는 미국의 끝없는 고립압살에서도 날에 날마다 지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선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현상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화철도역안이나 시내의 곳곳에서, 호텔앞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을 다니다가서는 인민신문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

인해보고 조선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다. 공화국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많아진것이 아니라 공화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공화국에서 진행되고있는 조선-프랑스 개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장에

서 전시회를 주관하고있는 프랑스로부터 온인원인 조신 반도담당장인 엘리자베트 샤발레르를 빼놓지 않고 보아도 30년간을 조선의 유적 유물연구에 바쳐오고있으며 《조선은 깊이 알수록 더욱 더 정이 들고 신비함으로 가득찬 나라》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더욱 정이 드는 나라! 어찌 그렇지 않겠냐!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 압력속에서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고 자주정치를 펼쳐나간 나날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조선, 도처에 일떠서는 인민의 힘찬 기상,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변하는 평양의 모습, 온 나라에 이는 체육열풍,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공원들, 밝고 웃음과 랑만이 넘치는 시민들의 얼굴...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의 수는 날이 더욱 늘고나고있다. 무심히 스쳐지나던 인사말이 주는 여운은 나의 온몸을 달구었다.

사랑하는 내 조국, 아름다운 내 나라 금수강산을 세계에 우뚝 올려세우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열정은 머지않아 현실로 될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것이라고.

관광성

미림송마구락부를 참관하는 외국인들

그는 꽃을 혼자서만 가꾸지 않았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는 소중한 그의 마음을 안 원산시의 일군들과 동. 인민반사람들도 제일처럼 떨쳐나 적극 도와나섰다.

저마다 질 좋은 부식도들도 들쭉들쭉 날라다주고 우수한 꽃종자들을 구해오기도 하였다. 엄동설한의 추위에 꽃이 일새라 온도보장을 위해 밤을 지새운 사람들도 있었다.

언젠가는 어떤 일도 있었다. 남승희녀성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의 재배 방법을 배우기 위해 평양에 올라가 배운 기간을 찾아가적이었다. 처음 와보는 곳이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한동안 망설이는대 한 일군이 그를 보더니 어떻게 왔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그 일군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고 가정에서 불멸의 꽃들을 키운다는데 정말 수고도 많았다고 하면서 그를 때려다 푸집한 식사도 시키고 아늑한 숙소도 마련해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평양을 떠날 때에는 불멸의 꽃들을 더 많이 키워 위대한대인수님들을 영원한 꽃향기 속에 모셔가지고 신심을 주고 교두로 해주었다.

이렇듯 뜨거운 애국의 마음들이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 활짝 피어나 이르다 꽃들은 오늘 원산시의 거리와 마을 그 어디서나 이제로운 풍경을 펼쳐지고있다.

조선로동당장기 69돐에 즈음하여 5일 제중동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어린 태양의 꽃들이 백두산전지를 배경으로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에는 차상보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 인류는 의사소통의 1차적인 단계이며 문화적적 발전의 도구인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오늘날 지구상에의 수천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 겨레는 력사적으로 하나의 강토에서 한족어를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러한 과정에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훈민정음》이라는 훌륭한 민족글자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날 외국이 강요한 분열로 하여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은 심히 이질화되고있다. 한 사람과 현상과 문화를 놓고서도 북과 남의 언어표현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것은 민족본질의 지속이 남는 비극적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은 우리 말과 글의 민족적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통일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며 오랜 력사를 통하여 창조된 우리 민족어유산을 총집대성한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이 《겨레말큰사전》으로 말하면 수십한 어휘자로부터 북과 남이 공동으로 쓰는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는 것은 우선 합의하여 단일화한약 30만개의 율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며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사전을 동시에 발행할수 있도록 여러가

# 상황을 이룬 바둑에 호가들의 경기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바둑에호가경기가 청춘거리 체육관에 위치한 태권도전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나이가 많은 바둑호수들로부터 유치원어린이들이에 이르기까지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들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번엔 진행된 전국바둑에 호가들의 경기는 참가하는 선수들을 나이별로 41살이상, 16살~40살, 11살~15살, 7살~10살, 6살이하 등 5개 부류로 나누고 남, 녀개인전과 혼성복식, 단체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에서 돌치리를 하면서 맹렬 공격으로 순식간에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능숙한 방어전술로 자기의 돌을 살리면서 집을 만들어나가는 경기과정은 불수록 흥미진진했다.

다른 경기들도 그러하였지만 복식경기는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경기는 나이가 차가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들이는 사람들과 한조가 되어 진행되는 경기였다.

상대방의 경기수법을 포착하는것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자기편의 전술적의도를 잘 알아야만 이길수 있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

함께 출전한 할아버지의 의도를 통찰할듯 머리를 끄덕이며 신심에 넘쳐 바둑돌을 착착 놓는 귀여운 어린이, 그것이 대견스러움등을 두드려주는 할아버지의 손길, 승리의 패강속에서 두손을 맞닿는 통쾌한 모습, 보던 볼수록 흥미를 자아내는 부

흥이건전해지게 된다. 또한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에서 돌치리를 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복잡한 일들을 조절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몸과 마음, 사업능력의 조화를 맞추게 된다.

인간의 기억력은 《지능의 창고》, 관찰력은 《지능의 눈》, 사고력은 《지능의 맥》, 상상력은 《지능의 날개》라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바둑에 담겨져있다. 특히 학령전나이에 바둑을 배워면 지능개발속도가 빨라져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부터 좋게 되며 나이는 사람이 바둑을 하면 정신적쇠화를 막고 사업과 생활에서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평양바둑단원장 윤용명



강원도 원산시에 가본 사람들에게 《우리 꽃들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는 한 가정이 있다. 장춘동 25민방에서 사는 남승희녀성의 가정이다.

20여년전부터 꽃을 키워오는 남승희녀성의 집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비롯하여 클라디올라, 만년정, 초롱꽃, 소철, 초매 등 50여종의 진귀한 화초들과 관상용식물들로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고있다. 그 광경을 보며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기간 남승희녀성은 가정에서 정성들여 키운 화초와 꽃관목을 가지고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는 화초전시회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여러 차례 특등의 영예를 지니었을뿐 아니라 꽃재배와 관련된 과학기술발표회에서도 1등을 하였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전국화초전시회에서 남승희녀성이 진지한 탐구와 노력끝에 새로 도입한 풍중가지물기로

원그루를 살리면서 단번에 많은 개체를 얻을수 있게 하는 소철의 번식방법은 실리가 대단히 큰것으로 하여 화초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가정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재배하여 도에서 열리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에 내놓았을 뿐 아니라 기관, 기업소들과 인민반민들속에서 불멸의 꽃에 대한 보급선전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어떻게 되어 전문화초생산단위로 아닌 가정에서 수십년세월을 가꾸어와 같이 많은 화초들을 가꾸어오고있을까? 그에 대해 남승희녀성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 도처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백화만발한 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보람찬 애국사업에 저의 마음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싶었을뿐입니다.》라고 말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작은것이라도 실지로 나라에 보탬을 주는데 진정된 애국이 있다는것을 실감으로 새겨안고사는 그것기에,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이 곧 자기 집과따라잇닿아있는 나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라는 자각을 안고사는 그것기에 환승이의 꽃이라도 깨끗으로 키워 소중하고 모든것을 아름답게 꾸러는데 바치고싶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하는 바둑은 사람들의 지능발달에 아주 좋은 민족체육종목이다.

바둑은 다른 민족놀이와 비교 독특한 재미가 있으며 또 사람들의 지능발달에 아주 특이한 효과를 나타낸다. 기예와 규칙이 간단하지만 그 수가 무한히 많고 흥미진진하며 또

바둑은 수법들이 수자와 관련되어있기때문에 인간의 수학적재능을 키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형을 하나 보아도 공간적으로 두시하는 능력이 비상히 높다. 바둑은 사람들의 탐구심과 창조력을 키워준다. 바둑을 두면 한수수를 깊이 생각해 사색하여 시적으로 진지한 연구태도와 사색하는 습관이 저절로 붙게 된다.

# 지능발달에 좋은 바둑

바둑은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논리적인지능력을 높여주고 두뇌단련과 정신수양에 큰 도움을 준다.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의 돌을 잡고 자기의 돌을 살리면서 집을 만들고 또 상대방의 집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 수를 쓰기때문에 돌들의 복잡한 놓임새를 놓고 형세판단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사물현상을 넓게 보는 능력이 형성되며 바둑그 자체가 두뇌운동이므로 마

#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제중동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이 깃들여있는 훈춘에서 태양의 꽃전시회를 가지는것은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창건 69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혁명투쟁업적이 깃들여있는 훈춘에서 태양의 꽃전시회를 가지는것은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현을 더 많이 찾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었다.

북한학자들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북한공동연찬위원회 제16차, 제17차회의때 사전에 올릴 언어들에 어떻게 표준화하는가를 모어주는 시범연구가 제출되고 제18차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사전집필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내외반동일세력의 끈질긴 방해조작과 반공조작은 사전편찬사업에도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통일조국에서 살 우리 겨레를 위한 북한언어학자들의 진지한 노력에 의해 거의 5년동안 중단되었던 《겨레말큰사전》 북한공동연찬위원회 후원위원회 부위원장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문영호선생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고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와 뜨거운 지성원이 있는 한 사업은 저지르지 않을것이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통일될 조국에서 사용하게 될 사전편찬사업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안고 더욱 분발해 나신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의 진지한 노력은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보고야말 것이다.

# 활발히 진행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언정보를 주는 현대사전이다.

사전편찬사업은 민족공조의 원칙에서 언어적차이를 줄이고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발양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를 설정해놓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전을 완성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북과 남의 사전들에서 율림말들은 북의 《조선말대사전》과 남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비

의회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언어사전들과 문헌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과 함께 언어현장들에 묻혀있는 귀중한 입말유산을 조사발굴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왔다. 율림말과, 새 어휘분과, 언어규범분과, 집필분과, 정보화분과를 나눈여건 편찬집단은 특히 방언, 민속어휘, 생활어 등 우리 겨레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된 어휘를, 민족고유의 어휘표



# ◆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부전고원 ◆

함경남도 부전군에 펼쳐져있는 부전고원은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이다. 면적 1,770km<sup>2</sup>, 평균해발높이 1,490m이다. 신생대 제3기 중신세까지만 하여도 낮은 벌이던 곳이 중신세말~제4기 중세에 퉁기 되어 이루어졌다.

부전고원의 두리에는 해발높이 2,000m안팎의 높은 산들이 솟아있으며 가을에는 부전호가 있고 북쪽으로 부전강이 흐르고있다.

주요기반암은 편마암, 결정편암이며 두리온 동화작용으로 덮여 있다. 이곳에는 금, 폴리브렌, 사문석 등 지하자원이 있다. 땅생김은 부전호와 부전강물짜기를 향하여 비탈져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북쪽으로 가면서 느리게 비탈져있다.

평균물때는 4~5° 정도이다. 땅면은 거의 평탄하다. 부전고원에서는 대륙성기후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년평균기온은 0.4°C이며 1월평균기온은 -18.2°C, 7월평균기온은 16.6°C로서 겨울은 길고 몹시 추우며 여름은 짧고 서늘하다. 년평균강수량은 800mm안팎이다. 고원가운데에 바다처럼 보이는 부전호는 이곳 미기후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 일대에서는 안개가 자주 끼며 대기의 습도가 높다. 부전호 높은 곳에는 담자리참꽃, 좁쌀꽃, 만병초, 누운잠나무들이 있다. 고원에는 또한 들쭉을 비롯한 산열매, 고사리와 같은 산나물 그리고 여러가지 약용식물들이 퍼져있다.

부전고원에는 범, 곰, 노루, 사향노루, 수달 등 여러종의 동물들이 살고있다. 주요토양은 표백화갈색산림토양, 표백성토양이다. 고원지대 진펄토양, 충적지도양도 있다. 해방후 부전고원에는 도시와 주민들이 배치되고 광산과 협동농장들이 꾸러졌으며 쓸모없이 버림받던 많은 땅이 기름진 부침 땅으로 개간되었다.

주요농산물은 감자이다. 밀, 보리, 배추, 무우 등도 생산되고있다. 곳곳에 있는 넓은 풀밭들은 양, 소 등을 기르는 방목지로 쓰인다. 주요축산물은 고기, 털, 젖이다.

부전호는 전력생산과 물고기 키르기, 떼운반, 려객수송에서 의의가 있다.

부전고원은 특이한 고지대의 자연풍경, 아름다운 계곡미, 대인공호수 부전호의 《산중바다》 풍경, 동쪽으로 아득히 멀리 보이는 조선동해의 해돋이 등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절경을 다 볼수 있는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근로자들의 즐거운 휴양지, 야영지, 탐승지로 되고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좋은 휴양지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조선봉건왕조가 존재한 519년(1392~1910년)동안의 모든 사실자료들을 기록해놓은 역사책이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기록된 내용의 방대성과 풍부성에서 세계 최대의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봉건왕조가 1대왕 태조로부터 27대 마지막 왕순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왕대별 년월일순서로 빠짐없이 서술되어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의 포괄범위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사상, 신앙, 문예, 민속생활, 천문기상, 지리, 의학, 자연현상과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

##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조선봉건왕조실록》

1,763권으로 본다. 편사해문제는 제쳐놓고 봉건시기에 편찬된 한 왕조의 역사기록으로서 그 방대한 양만 가지고도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세계에 몇몇이 자랑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태왕대별 4부씩 인쇄하여 4개 지역의 보관고들에 보관하여왔는데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때 한부만이 남아있다.

그후 이 한부를 4부로 확대하여 보관하였는데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2부만 남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존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당 일군들을 과전하시어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해오도록 하시고 영부보존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또한 방대한 《조선봉건왕조실록》 원문전체를 번역출판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어 그것이 역사연구에 이용되고 후대교양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주시었다.

## 민간료법을 종합체계화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료법은 전문의사가 없어도 사람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수 있게 한다.

최근 평양산원 고려부인과에서 전통적인 민간료법에 대한 도서들을 집필하여 성서로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민간료법을 모두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치료사업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갔다.

치료의 여가시간과 밤시간, 휴식일을 바쳐 몇몇동안 자료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까지 나온 모든 민간료법도서들을 료해하고 그 부족점을 찾았으며 없는 것과 모자라는것, 새로운것을 보충하여 그것을 종합체계화할 준비를 진행하였다.

고려부인파에서는 우리 나라의 민간료법을 종합체계화하기 위하여 수단개의 처방을 주면서도 지난 시기의 도서들과는 달리 서술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일반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 자재로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한다.

《현대판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사로 불리우는 전재우의사를 비롯하여 고려부인파의 의사들은 오늘날도 민간료법을 종합체계화하는 사업을 즐겁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고려의학은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의 생활습성과 신체의 구조에 발전하여온 전통적인 의학이다.

라신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발굴된 5천년전 신석기시대의 유적, 유물들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이 시기에 벌써 돌침(염석), 뼈침을 만들어 병을 치료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약초를 병치료에 많이 리용하였는데 인삼, 새삼씨, 주염나무열매, 밤과 같은 고려약들이 쓰였으며

## 역사가 오랜 고려의학

이웃나라 사람들까지도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치료방법과 고려약연구 등 축적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수한 의학적성을 많이 출판하였다.

특히 3대고려의학교전인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을 비롯한 이름있는 의학책들을 수

1. 시간부담 어떤 사물을 정신을 집중하여 오래동안 관찰하고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감각이 마비되는것과 같은 감을 느끼게 된다.
2. 비만 몸무게가 초과되면 인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피곤을 느끼게 된다.
3. 운동부족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고 잘못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실은 운동을 적게 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보다 많은 기력을 소모하게 됨으로써 인차 피로를 느끼게 된다.
4. 늦잠 일부 사람들은 쉬는날에 늦잠을 좀 자야 쌓였던 피곤이 풀리는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늦게 자고 늦게 깨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생물시계가 혼란되어 정신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5. 심리 우울한 감정은 피곤을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다. 심리가 불안하고 지나치게 긴장하면 잠을 제대로 잘수 없으며 결국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6. 영양부족 일상적으로 가공식품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면 영양이 부족되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신선한 과일과 남새, 물고기, 고기, 난알, 콩 등을 많이 먹어야 한다.
7. 갑상선분비부족 갑상선분비가 부족되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8. 탈수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량이 줄어들고 체력과 정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에 보통 8~1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
9. 약 일부 리노제나 항우울증약, 감기약을 사용하면 매우 피로한 감을 느끼게 된다.
10. 사업환경 주변환경의 색조화가 어둡고 음침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하거나 학습하는 환경을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많이 포함되게 꾸려야 한다.

본사기자

많이 편집, 발행하였다.

오늘 고려의학은 공화국에서 전면적인 개화기, 전성기에 들어섰고 있다.

본사기자

##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5)

글 정 의 선, 그림 김 윤 일

《아버님, 올가미편수를 해 팔면 더 잘 팔수 있소이다. 우선 새로운 음식이라는 데서 사람들을 끌수 있고 또 이 편수가 어떤 뜻을 가진 음식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사먹을수 있소이다. 지금 개성사람들이조 조선봉건왕조에 원한을 품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소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올가미편수를 즐겨 사먹을수 있소이다. 그래서 이런 편수를 해 팔자는 생각이오이다. 만약 이 음식때문에 말쟁이 생긴다고 해도 저 하나에 국한되고 말게 하겠소이다. 제가 저 자거리에 나가면 려엄집너이니로 알지 양호당집 머느리로 알 사람은 없소이다. 머느리의 말을 심중히 듣고난 양호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아무래도 올가미편수라는 이름이 뜻은 좋지만 그렇게 부르기보다 《개성편수》라고 하든가 《변씨편수》라고 하는것이 어떠냐?》 하고 머느리의 의향을 물었다. 머느리는 신신히 양호당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 때서 올가미모양의 편수가 《개성편수》, 《변씨편수》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후 변씨는 남대문 남쪽 저자거리에 음식점을 차려놓고 《변씨편수국집》이라는 간판까지 걸고 편수장사를 시작하였다.

원래 음식만드는 솜씨가 있는 변씨의 편수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변씨편수국집》이 점점 활기를 띠게 되자 변씨는 음식의 점을 늘이고 또 여기서 술까지 팔게 되니 매일 음식점은 손님으로 북미었다. 또 편수를 받아다 먹거나 배달해달라는 요구도 높아졌다.

편수국집이 나날이 번창해지니 변씨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편수를 만들 감세도 장만 할때, 주방일도 물물래, 손님도 맞이할때 땀이처럼 돌아쳐도 그 일을 다 감당할수 없었다. 그렇지만 수입은 대단하였다. 이제는 양호당이 재산으로 있을 때 못지 않게 생활이 편이게 되었다.

변씨는 편수국장사를 더 크게 벌릴가 하오이다. 음식점 칸수도 늘이고 또 감세도 저자에서 사 술것이 아니라 직접 춘에 나가서 구입해다 쓰면 벌이가 한결 잘될수 있을것 같소이다. 춘에 나가서 메밀이나 밀, 남새 등을 구해다주는 일만 누가 맡아주면 편수국장사를 크게 할수 있소이다.》

◆ 변질한 우유를 버리지 말고 화분통에 물을 주는 방법

우유라 해도 식품에는 리효를 많이 함유하고있으므로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 그런데 잘 모르는 우유를 화분에 주어서는 안된다. 우유가 발효될 때에 많은 열이 생기므로 꽃뿌리가 타서 죽기 때문이다.

◆ 물을 식혀서 꽃에 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르싱싱한 잎사귀에 탐스러운 꽃송이가 피어난다.

◆ 달씨가 찬 겨울에는 온도가 35°C되는 물을 화분에 주면 꽃이 싱싱해진다.

본사기자

##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5)

《아버님, 그 일을 제가 맡겠소이다. 저도 그 일을 맡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지 오랜입니다. 다만 마차나 우차를 몰고 다니기가 좀 거북할것 같아 말승이였소이다. 아버님, 마차라도 한대 장만해야 될것 같소이다.》

《오나, 그것도 있어야지... 말은 내가 타고 다니던 말이 그냥 놓고있는데 그것을 부림말로 쓰든가 바껴 쓰면 될것이다. 마차는 한대 장만하거라.》

《아버님, 그렇게 하겠소이다.》

이윽하여 양호당집 만이들 흥수까지 편수국장사에 합세하니 편수국집은 더욱 흥성해져 얼마 안 가서 장안에서 제일 큰 음식점으로 되었다.

변씨부인은 주방일을 주관하면서 주로 손님접대와 판매를 맡아보았다. 그는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개성편수가 어떤 뜻과 담고있는 음식인가에 대하여 말해주는것



짧은 선비가 찾아왔다. 리성계의 여덟아들중에서 제일 용맹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수완도 있고 계교도 멋진 귀족출신인 다섯째 아들 리방원이었다. 천성이 포악시 생각해보니 개성놈들이 새왕조에 대해 얼마나 적의를 품고있는가를 제논으로 직접

먹는 집들까지 다 들이쳐도 록을 내려고 심부부하를 불렀다. 방원의 살인지령을 어김없이 집행한 공로로 하여 방원의 경호장군까지 된 자였다. 이런자를 호출해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개성놈들이 새왕조에 대해 얼마나 적의를 품고있는가를 제논으로 직접

《내 저자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한다.》

《그럼 저도 변복을 하고 오겠소이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오늘은 혼자 나가겠다.》

《세자전하, 그때도 저 한 사람만이라도...》

편집위원회